

지난해 경진기 지역총생산액 약 12 조원

— 5년 만에 3 조원 증가, 상주인구 1억명 초과



지난 2025년 11월 28일 천진 보지역에 들어서는 열차 / 신화사

‘제 14차 5개년(2021년—2025년) 계획’ 기간 경진기(京津冀) 협동 발전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진기협동발전통계모니터링공실에 따르면 경진기의 지역내총생산(GRP)은 지난 2020년 8조 9,600

억원에서 지난해 약 12조원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3조원 늘어난 규모다. 총면적이 21만 6,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진기 지역의 상주인구는 1억명을 돌파했다.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량수령은 ‘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진

기 협동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비(非)수도 기능 분산이 흔들림없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시·농촌 건설 용지를 150평방킬로미터 감축했고 3,000개 이상의 일반 제조기업을 퇴출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제구조와 공간 배치 최적화 및 6개 산업사슬, 5개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웅안신구는 대규모 건설과 복경의 비수도 기능 ‘인수’라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며 매년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비수도 기능 분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SCN), 시노켄(Sinochem·中国中化), 중국화능(华能)이 정식 입주했다.

중점 영역 협동도 속도가 붙으며 교통, 생태,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서 계속해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진기의 신철도 영업 구간 거리는 710킬로미터에 달했다. 경진기 주요 도시간 ‘1~1시간 30분’ 교통권이 기본적으로 구축됐다. 아울러 지역 대기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수생태계 복원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진기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한 핵심 요소로는 협동 혁신과 산업 협업을 꼽았다. 지난 5년간 북경시에서 천진시, 허베이성으로 이전된 기술 계약 체결액은 3,200억원을 넘어서며 년평균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제 13차 5개년(2016년—2020년) 계획’ 기간보다 2.7배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 북경 중관촌 기업이 천진, 허베이에 설립한 산하 기구는 1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화사

꽃 샤브샤브·장미 라떼... 운남 화훼산업의 놀라운 변신



음력설 연휴 기간, 운남성 곤명 지하철 금계거리 두남화훼시장역은 꽃을 손에 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금계거리역은 아시아 최대 꽃시장인 두남화훼시장과 린접해있어 환승 통로와 렉사 내부를 제철 꽃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낭만적인 지하철역’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화훼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류준봉과 초요는 ‘꽃경제’ 호재를 포착해 화훼예술전문교육학교를 설립했다. 학교는 꽃꽂이 실습, 꽃포장, 공간 연출, 꽃집 창업, 전자상거래 판매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강생의 90%는 화훼 예술 관련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취미 과정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 수강생은 과정을 수료한 후 자신만의 화훼 예술 작업실을 차렸다. 그는 “작업실에서는 주로 빈티지, 와일드 플라워 스타일 등 다양한 꽃다발을 제작하며 결혼식과 돌잔치 등 행사 장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꽃의 가치는 단순한 감상 영역을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다. / 신화사

운남성에서는 꽃을 활용한 음식이 식탁에도 오르며 보는 즐거움은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주력 상품인 꽃전병외에도 장미 식초, 장미잼, 꽃과일차 모두 인기 상품입니다.” 곤명의 한 꽃전병 가게 사장은 제품에 사용되는 꽃 모두 현지 농장에서 직접 공급받고 있다며 꽃밭 바로 옆에 가공 생산라인이 있다고 밝혔다.

사천에서 온 한 관광객은 “꽃 샤브샤브는 색다르다.”며 “예전에 가족, 친구들과 운남성에 왔을 때는 버섯 샤브샤브를 자주 먹었는데 꽃을 식재료로 활용한 이 샤브샤브 가게는 꽃이라는 특산물을 세련되게 재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튀긴 호박꽃과 장미 라떼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장미 에센셜 오일 비누, 벤더 향낭, 치차나무 꽃 샴푸 등 꽃을 활용한 다채로운 파생 상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운남성은 우리 나라 최대의 화훼 생산지로 연간 생화 생산량이 200억 송이를 넘는다. 전국 시장에 유통되는 10송이중 7송이가 운남산이다. 운남성은 꽃을 보고 즐기는 것에서 아름다운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배·생산 영역을 넘어 식문화산업으로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 신화사

매일 5개 신상 출시...

의오, 신속한 트렌드 포착으로 글로벌 수요 ‘정조준’

‘세계의 슈퍼마켓’ 의오가 트렌드를 조기에 포착해 빠르게 실물 제품으로 전환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미 구축된 촘촘한 공급사슬 덕분이라는 평가다.

절강성 의오시의 한 상점에서 가발 수출업자 리소비가 에티오피아 고객에게 새로운 포니테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그는 100여개 국가(지역)로 제품을 수출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중 포니테일 제품은 5월까지 예약 주문이 꽉 차있는 상태다.

리소비는 혁신의 일환으로 매달 10개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다양한 컬러, 길이, 스타일의 포니테일 제품 120여종을 개발해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인형 옷 판매를 시작한 곡희걸 융성(絨星)아트토이 사장은 올해를 상징하는 말 테마 의상을 포함해 하루에 수만개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계적으로 수집용 피규어 의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포착한 결과다.

그는 뾰족한 치아가 특징인 라부부



지난달 10일, 의오국제비즈니스성에서 봉제인형상점 사장이 주문을 확인하고 있다. / 신화통신

(Labubu)와 같이 입소문을 탄 캐릭터들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융성아트토이는 매일 다섯개가량의 신규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액세서리와 부품은 의오 현지에서 곧바로 조달이 가능하다. 그는 “의오의 성숙한 공급사슬이 빠른 대응

과 효율적인 생산을 보장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의오의 경쟁력이자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오픈한 ‘의오글로벌디지털무역센터’는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에 중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며 빠른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에는 창의 완구, 패션 주얼리, 스마트 장비 등 신흥 분야를 아우르는

3,700여개의 신규 상점이 입점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지식재산권(IP) 기반 제품을 판매하는 젊은 창업자들이다.

의오글로벌디지털무역센터 부사장 주행명은 “과거 의오는 단순한 상품 유통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디자인, 연구개발(R&D), 디지털 물류 등 서비스 업종으로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의오시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무역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도구들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제 판매자들은 클릭 몇번으로 디자인을 생성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동영상상 여러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의오시는 수출과 수입 모두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외무역 수출입액이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섰다. 의오국제비즈니스성에는 약 8만개의 부스가 마련돼 233개 국가(지역)와 210만종 이상의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 신화사

호북성, 자체 개발 eVTOL 항공기 공개



호북성에서 자체 개발한 전동 수직 리프트기(eVTOL) 항공기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일 열린 ‘중부지역 중요 전략 거점 건설 가속화 추진 대회’에 등장했다. 현장에는 호북의 저고도 경제, 인공지능(AI) 등 산업의 최신 연구개발 성과가 집중 전시됐다. 사진은 이날 행사 현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eVTOL 항공기를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사

图说 我们的价值观

友 诚 敬 爱 法 公 平 自 和 文 民 富
善 信 业 国 治 正 等 由 谐 明 主 强

中华圆梦 万马奔腾

河北蔚县 隗新德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